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 하루 빨리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



2006년 5월

일 본 국 외 무 성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오랜 세월 부인해왔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일본정부가 인정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는 16명이며, 그중 5명은 2002년 10월 15일에 24년 만에 귀국이 실현되었다. 2004년 5월 22일 평양에서 다시 열린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2002년 10월에 귀국한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과 더불어, 생사불명자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 재개를 천명했으나, 귀국한 5명을 제외한 납치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아직도 북한 당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생사불명인 납치피해자들이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 아래 북한 측에 대해 피해자의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

## 1. 배경

(1)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부 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본 당국의 수사와 망명 북한 공작원의 중연에 따라, 이들 사건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짙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1년 이후 일본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계속 완강히 부인해왔다.

(2) 일본내에서는 1997년 납치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가 결성되는 등 피해자 구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가 총리대신에게 제출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인정한 16명의 납치피해자 외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이 납치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다.

(3) 북한이 납치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를 한 배경에는 공작원에 의한 신분 위장, 공작원의 일본인화 교육을 위한 이용, 북한에 은닉 중인 ‘요도호(よど号)’ 그룹 (‘요도호’ 그룹이란,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JAL) 351편 ‘요도호’ 납치범과 그 가족 등의 총칭)에 의한 인재 획득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일북정상회담(2002년 9월 17일)

(1) 2002년 9월 17일의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긴 세월 부인해온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사죄하며, 납치피해자 가운데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북한 입국확인 불가능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납치를 시인하고 생존을 확인했다(한편, 그 후의 조사에서 북한 측은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그의 모친에 대해서는 북한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동시에 가족 면회 및 귀국 편의제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생존자의 귀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2)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납치사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측이 피해자의 귀국을 허가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 결성



‘가족회’에 의한 서명 활동

### 3. 사실조사팀의 과정 (2002년 9월 28일-10월 1일)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정부가 파견한 사실조사팀이 생존자와 면담, 생사 미확인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는 원래 제한적인 데다가 내용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심스러운 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해 10월 29일-30일에 열린 일북국교정상화교섭에서도 정부는 150개 항목에 걸친 의문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총괄적인 회답은 없었다.

### 4. 피해자 5명의 귀국(2002년 10월 15일)

(1) 일본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2년 10월 15일 납치피해자 5명(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후키에(富貴恵)씨,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씨·유키코(祐木子)씨, 소가히토미(曾我ひとみ)씨)이 귀국해 가족과의 재회를 이루었다.

(2) 일본정부는 이들 납치피해자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도 포함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해 10월 24일 5명의 납치피해자가 계속 일본에 남도록 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확보 및 귀국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그후 이들 가족의 귀국 및 생사불명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은 일북간의 중대 현안으로 협의되어 왔다.

### 5. 일북정상회담(2004년 5월 22일)

2004년 5월 22일, 2002년 9월의 일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일조평양선언’을 이행할 생각임을 거듭 확인하고, 일북 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북한을 방문해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북 간의 문제와 핵, 미사일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두 정상 간에 합의되었다.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씨·유키코(祐木子)씨 가족, 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후키에(富貴恵)씨 가족 등 모두 5명의 가족이 이 날 일본에 귀국한다는 데 동의한다. (소가히토미(曾我ひとみ)씨의 가족 3명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1시간에 걸쳐 일본에 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기에 제3국에서 가족이 재회하기로 하여 같은 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재회, 7월 18일 귀국 및 방일이 성사되었다.)

생사불명의 납치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즉각 진상규명 조사를 백지상태에서 재개한다.



24년만에 귀국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

### 6. 일북실무자협의

(2004년 8월 11일-12일, 9월 25일-26일, 11월 9일-14일)

(1) 2004년 8월 11일-12일(제1차) 및 9월 25일-26일(제2차)에 베이징에서 일북실무자협의가 열렸다. 9월의 협의에서 북한 측은 일본정부가 제시한 ‘150개 항목에 걸친 의문점’을 참고로 한 생사불명자에 관한 재조사의 중간 경과를 제공했으나, 일본 측은 북한 측이 제공한 정보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나 자료 제공이 없고 또 조사결과가 단편적인 중간 경과의 설명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 위에서 오고간 내용을 바탕으로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가 2004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협의는 50여 시간에 이르러 ‘조사위원회’ 와의 질의응답 외에 모두 16명의 ‘증인’ 들로부터의 직접 청취, 그리고 납치 관련시설 등에 대한 현지답사도 있었다. 또한 이 협의에서 일본정부는 납치피해자로 파악되지

는 않았으나 북한에 납치당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이른바 ‘특정 실종자’등)문제에 대해 북한 측에 5명의 이름을 제시하며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지적 여부에 상관없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한 제공을 거듭 요청했으나, 북한 측은 해당 5명에 대해 북한 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3) 일본대표단의 귀국 후, 정부는 즉시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정보 및 물적 증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해 12월 24일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그 개요를 공표했다.

(4) 다음날인 12월 25일,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두 항의와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전달하고, 아울러 정밀조사 결과의 개요 및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감정결과의 요지를 직접 전달했다.

가.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를 통해 얻은 정보 및 물증에 대해 그간 정밀조사를 해왔으나, ‘8명 사망, 2명은 입국 확인 불가능’이라는 북한 측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성의 없는 대응에 강력히 항의한다.

나.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 및 물증은 생사불명의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전혀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백지’로 돌아간 철저한 조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또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서 동일인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다. 생사불명의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루 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생존자는 즉각 송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신속하고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으로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2004년 5월 22일 평양에서 개최된 일북정상회담

(5) 2005년 1월 26일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

장하는 뼛조각(骨片)에 관한 일본측 감정결과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북한의 1월 24일자 ‘비망록’이 일본 측에 전달된 동시에 거듭 본건 뼛조각의 반환 요구가 있었기에, 2월 10일 우리 측으로부터 북한 측 ‘비망록’에 대해 반론을 전달하고 거듭 생존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과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후에도 2월 24일, 4월 13일에 북한 측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우리 측에서도 재차 감정결과의 객관성, 과학성을 언급하며 반론했다.

## 7. 다나카 미노루씨를 16번째 납치피해자로 인정 (2005년 4월 27일)

1978년 6월 효고현(兵庫県)에서 남자가 실종된 사안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고베(神戸) 시내의 음식점에 출입하던 다나카 미노루(당시 28세)씨가 북한의 지시를 받은 음식점 주인인 재일 조선인의 감언에 넘어가 해외로 따라 나간 뒤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05년 4월 27일, 정부는 납치피해자의 인정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다나카 미노루씨를 납치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인정한 북한의 납치사안은 11건에 16명이다.

## 8. 일북포괄병행협의(2006년 2월 4일-8일)

(1) 2005년 11월 및 12월의 2차례에 걸쳐 약 1년 만에 일북정부간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때의 협의에 입각하여 금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일북포괄병행협의’(‘납치문제 등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및 ‘국교정상화 교섭’)가 개최되었다. 납치문제에 관한 협의는 모두 약 11시간에 걸쳐 우리 측에서 거듭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향한 재조사 약속,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2)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취지의 종래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의있게 노력했다’, ‘조사한 사실을 그대로 회답했다’고 주장하고 생사 미확인자의 지속적인 재조사조차 약속하지 않았다. 또한 납치범의 인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 등의 주장을 하며 인도를 거부했다.

(3) 이처럼 북한 측에서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한 구체적 진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일본인 등 7명에 대해 북한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며 그의 인도 등을 요구해왔다.

## 9. 납치용의사안의 실행범 등의 지목

(2002년-2006년)

(1) 2006년 2월 23일, 후쿠이현(福井県)의 아베크 납치용의사안의 실행범으로 북한 공작원 신광수를, 니이가타현(新潟県)의 아베크 납치용의사안의 실행범으로 북한공작원인 자칭 고스미 겐조(小住健蔵), 통칭 최순철을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2) 북한의 일본인납치용의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2002년 8월 이후 신광수사건의 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 유럽에서의 일본인여성 납치용의사안의 실행범인 ‘요도호’ 범인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 舊姓: 安部), 우시쓰(宇出津)사건의 주범격인 북한 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배와 함께 북한에 대해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에 인도를 요구중인 납치실행범인들 (왼쪽으로부터 신광수,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 김세호, 최순철)

## 10. 국제사회의 인식과 일본정부의 기본입장

(1)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다. 이러한 기본인식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결의가 채택되었다. 총회 결의는 외국인의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엔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006년 5월 한국방문시 납치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2월에는 비엣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자가 방일하여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면담 등 본건 납치문제의 현상에 대해 정력적으로 정보수집을 했다. 2005년 9월에 유엔이 발표한 동 보고자에 의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외국인 납치문제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북한은 여전히 동 보고자의 북한 방문조사 등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일본정부는 G8정상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이용해 납치문제를 제기,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왔다. 예를 들면 2005년 7월의 글렌이글스 서미트에서 일본은 납치문제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각국의 이해를 얻어 의장총괄에 ‘북한은 그 인권상황이나 납치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응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일본에 귀국한 납치피해자 등의 중언으로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등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도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일본정부가 실시한 DNA검사로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이, 1978년 당시 고교생으로 한국에서 납치된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2002년 9월 일본정부 관계자가 평양에서 면회한 요코타 메구미씨의 딸 김혜경씨와 한국인 납치피해자 친족의 DNA를 비교하여 양자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것). 이에 따라 일본 측은 북한 측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성의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2006년 5월에는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한국인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문제해결을 향한 양국 가족의 연계강화를 확인했다.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김영남씨



요코타 메구미씨의 딸 김혜경씨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과 한국인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면담

(4) 각국에서도 납치문제에 대해 이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2005년판 연차 테러보고서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 납치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계속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했다. 납치피해자 가족은 2006년 4월 미하원 공청회에서 증언하였으며, 또 부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납치피해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하여 미국관계자와 미국여론의 커다란 공감을 얻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메구미씨의 어머니가 다시금 딸을 안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일본의 입장에 더욱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 이 방미를 통하여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납치피해자 가족과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면담

(5)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도,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성명에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담겨져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회담의 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었다.

(6) 이처럼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그간의 일본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납치문제는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그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방침에 따라 일북포괄병행협의를 비롯하여 모든 기회를 통해 북한 측에 피해자의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며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모해가려 한다.

## 일본정부 인정의 16명에 관한 사안

일본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는 16명에 관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당시의 나이와 실종 장소)

### 1. 1977년 9월 19일 우시쓰(宇出津) 사건

● 피해자: 구메 유타카(久米裕)씨 (52세, 이시카와현(石川県))



● 이시카와현 우시쓰 해안 부근에서 실종.

● 북한 측은 구메씨의 북한 입국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주범격인 북한 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2003년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중이며, 정부는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 2월의 일북포괄병행협의에서 북한 측은 김세호에 대해 ‘이런 사람은 알지 못한다’며 일본의 관련정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하겠다고 회답했다.

### 2. 1977년 11월 15일 소녀 납치용의사건

●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 (13세, 니가타현(新潟県))



●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실종.

● 2004년 11월에 열린 제3차 실무자협

의에서 북한 측은 메구미씨가 1994년 4월에 사망했다며 ‘유골’을 제출했으나,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뼈의 일부에서 동일인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2006년 4월에는 일본정부가 실시한 DNA검사로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이, 1978년 당시 고교생으로 한국에서 납치된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 3. 1978년 6월경 전 음식점종업원 납치용의사안

● 피해자: 다나카 미노루(田中実)씨 (28세, 효고현(兵庫県))



● 1978년 6월, 유럽으로 출국한 뒤 실종.

● 2002년 10월 콜라룸푸르에서 있은 일

북국교정상화교섭 제12차 본회의 및 2004년에 총3회에 걸쳐 열린 일북실무자협의에서 일본은 북한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제3차 협의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북한에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회답이 있었다.

● 2005년 4월 다나카 미노루씨의 납치가 인정된 이후, 일본정부는 북한 측에 즉시 귀국 및 사안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다.

#### 4. 1978년 6월경 리은혜(李恩惠)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22세, 불명)

●1987년 11월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 첨보원 김현희는 ‘리은혜’라는 여성으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행동거지를 배웠다고 주장했다. 리은혜는 행방불명이 된 다구치씨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북한 측은 다구치씨가 1984년 하라 다다아키(原敕晃)씨와 결혼했으며, 1986년 하라씨가 병사한 후 곧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5. 1978년 7월 7일 아베크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 (23세, 후쿠이현(福井県))



치무라 후키에(地村富貴恵, 舊姓: 浜本)씨(23세, 후쿠이현)



●1978년 7월 7일 둘이서 레이트하려 나간 이후 실종.

●두 사람은 1979년에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2명은 2004년 5월 귀국.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에 대해 2006년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는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 6. 1978년 7월 31일 아베크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씨 (20세, 니가타현(新潟県))



하스이케 유키코 (蓮池祐木子, 舊姓: 奥土)씨(22, 니가타현)



●1978년 7월 31일, 하스이케씨는 ‘잠깐 나갔다 금방 돌아오겠다’며 외출한 채 소식이 끊긴다. 마찬가지로 오쿠도(奥土)씨도 외출한 채 실종.

●두 사람은 1980년에 결혼.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딸 1명과 아들 1명은 2004년 5월 귀국.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통칭 최순철에 대해 2006년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배하는 동시에, 정부는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 7. 1978년 8월 12일 아베크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이시카와 슈이치(石川修一)씨 (23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마스모토 루미코(増元るみ子)씨(24세, 가고시마현)



●1978년 8월 12일, 바닷가로 석양을 보러 간다며 나간 채 실종.

●북한 측은 1979년 7월에 두 사람이 결혼했으며, 이시카와 슈이치씨는 같은 해 9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마스모토 루미코씨는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8. 1978년 8월 12일 모녀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소가 히토미(曾我ひとみ)씨 (19세, 니가타현(新潟県))



소가 미요시(曾我ミヨシ)씨(46세, 니가타현)



●1978년 8월 12일, 둘이서 쇼핑하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

●히토미씨는 2002년 10월 일본으로 귀국. 남편 젠킨스씨(미국인)와 2명의 딸도 2004년 7월 도일, 귀국.

●북한 측은 소가 미요시씨가 북한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9.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남성 남치용의사안

●피해자 :

이시오카 도오루(石岡亭)씨(22세, 유럽)



마쓰키 가오루(松木薰)씨(26세, 유럽)



●두 사람 모두 유럽 체재중인 1980년에 실종. 1988년 이시오카씨가 일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폴란드 소인)가 도착해 이시오카씨, 마쓰키씨, 그리고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씨가 북한에 거주한다고 전해 왔다.

●북한 측은 이시오카 도오루씨가 1988년 11월 가스 사고로 아리모토 게이코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마쓰키 가오루씨에 대해서도 1996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2002년 9월 및 2004년 11월에 열린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의 두 차

례에 걸쳐 북한 측은 마쓰카씨의 '유골'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출했으나, 그 중 일부에서 동일인과는 다른 DNA가 검출 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10. 1980년 6월 중순 신광수(辛光洙) 사건

●피해자: 하라 다다아키(原敦晃)씨 (43세,

미야자키현 (宮崎県))

●미야자키현내에서 발생.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

신광수가 한국 당국에 하라씨의 납치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다. 수사 당국은 신광수에 대해 지금까지 하라씨 행세를 했다는 용의로 체포장 발부를 받아 국제수배하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신병인도를 요구해왔는데 2006년 4월에는 새로이 납치용의 주범으로 체포장이 발부되었다. 북한 측은 신병인도에 응하기는커녕 그를 '영웅'으로 호칭하고 있다. 또 수사당국은 하라씨 납치용의 공범자인 김길숙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수배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북한 측은 하라씨가 1984년에 다구치 야에코씨와 결혼, 1986년 간경변으로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있다.

●북한 측은 아리모토씨가 1988년 11월 가스 사고로 이시오카 도오루(石岡亨)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1. 1983년 7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여성 납치용의사안

●피해자: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씨

(23세, 유럽)



●유럽에서 실종. '요도호' 범인의 전

부인은 북한 당국과 협력해 아리모토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납치실행범인 '요도호' 범인 우오모토 기미히로 (魚本公博, 舊姓: 安部)에 대해 200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수배하는 동시에, 정부는 북한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파란색은 납치피해자의  
초국인 일본과 북한 사이  
에 가로놓인 '일본해의 푸  
른 빛'과,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을 유일하게 이어주는  
'파란 하늘'을 가리킨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9 JAPAN

tel +81-3-3580-3311 http://www.mofa.go.jp